



INDO INTERTEX 2023 Internasional Expo Kemayoran에서 개최
3월 29(수)~3월 31일(금) 3일간 성황리에 열려

한국봉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65



2023년 르바란 귀성객 1억2천만명... 자가용차 귀성 2,732만명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들피트리) 귀성객이 1억2,3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이라고 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통문제연구소 인도네시아 교통사회(MTI) 조코 스페와 르조 연구원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직후에 시작되는 올해 르바란 귀성객이 1억2,300만명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탓으로 지난 3년동안 일부 주민들이 고향을 찾지 못해 올해 귀성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TI가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귀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차 이용자가 2,732만명(22.1%)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토바이 2,513만명(20.3%), 버스 2,277만명 순이다. 귀성 목적지별로 중부 자바주가 3,275만명(26.4%)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부 자바주 2,460만명(19.8%) 서부 자바주 2,072만명(16.7%) 순

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트란스자바 고속도로(Trans Jawa Toll Road)로 92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란스자바 고속도로는 자바섬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로 자바섬의 최서단 머락에서 최동단 반유왕이까지 총 1,167km 길이로 반푼, 자카르타,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등 총 5개 주에 걸쳐 있으며 자카르타, 짜레본, 스마랑, 솔로, 수라바야 등 주요 도시를 경유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르바란 귀성·귀경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르바란 연휴를 당초 계획한 날짜를 당기고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르바란 공식 휴일은 4월 22일(토)과 23일(일)에 도래할 예정이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체휴일(cuti bersama)을 포함해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을 관광 공휴일로 확정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INDO INTERTEX 2023 Internasional Expo Kemayoran에서 개최 3월 29(수)~3월 31일(금) 3일간 성황리에 열려

지난 3월 29(수)~3월 31일(금) 3일간 INDO INTERTEX 2023이 International Expo Kemayoran에서 열렸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공식 행사만큼 Expo 개최측은 물론 관람인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섬유 연합회(KOFOTI) 최준영 실장을 비롯한 KOFOTI의 실무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 안창섭 회장님과 면담을 갖고 해외진출 한인 기업의 애로사항 및 당면한 인도네시아 봉제현황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섬유산업연합회



와 KOGA는 코로나 이전인 2021년 가까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진출 섬유기업 조사'

를 함께 진행한바 있으며 이번에 그 조사의 일환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KOGA 홍보실]

인니 당국, 수입 중고의류 대대적 단속·적발... 일부 원산지 한국

인도네시아 당국이 불법 중고의류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과 관세 당국은 최근 시장에서 535개 대형 자루에 담아 불법적으로 수입·유통한 중고의류를 적발하고 30대 수입업자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 수입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를 통해 중고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4년 대외무역법과 1999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25일 현지 언론은 전했다.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경찰청도 지난 24일 잠비 무아로 지역 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중고의류 134자루를 적발했다. 잠비 당국은 항구를 중심으로 중고의류 수입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중고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고의류 수입이 국내 섬유·봉제 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1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도네시아 납세 준수율 감소... 세무공무원 사건으로 국민 신뢰 하락



▲전 재무부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론 프리삼보도(가운데)가 심문을 마치고 2023년 4월 3일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부패근절위원회(KPK) 본부를 나서고 있다. KPK는 라파엘이 지난 12년간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금했다.(사진=안따라/M Risyad Hidayat)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3월 31일 마감일까지 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납세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의 납세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아들의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고위 세무공무원의 재산 부정축재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에 따라 대중의 신뢰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세무 뉴스 포털 DDTC 뉴스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들의 3월 31일 납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 준수율은 2023년 63%로 1년 전에 기록된 66%보다 훨씬 낮아졌다. 비교용인 개인의 준수율은 작년 45.53%에서 3월 31일 현재 26.84%로 급락했다고 지난 2일 쏘넨이 보도했다. 자카르타 싱크탱크 경제법률 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센터장은 지난 3일 개인, 특히 비교용인 개인의 세금 신고서 제출은 세무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

려 있기 때문에 납세 준수율의 하락 추세는 최근 발생한 세무공무원 사건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건을 너무 오래 끌면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과 모든 과세 소득을 신고 등 세법 규정 준수율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공제해 국가에 전가하는 제3자가 처리하는 세금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처럼 납세자 스스로가 차감해 국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재무부 국세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국내 등록된 납세자의 92.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 납세자가 5.94%로 그 뒤를 이었다. 뿌라따마-크레스톤 조세연구소(Pratama-Kreston Tax Research Institute, TRI)의 뿌리안또 부디 샵또노(Prianto

Budi Saptono) 전무는 3일, 세금 신고서 제출 교육 행사에서 여러 납세자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사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세무 공무원이 비자발적 납세자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게 되므로 정부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 납세자의 기록 및 데이터에 대한 검사와 심층 조사에 주력하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될 사람을 식별하고 등록하는 것과 같이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이 줄게 된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히 자영업자나 비공식적인 소득원에 의존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가 과소 납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없어진다. 재무장관 납세 보좌관 윤 아르살(Yon Aرسال)은 3일 법인 납세자를 포함한 전체 납세율이 61.8%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은 세무서가 마감 후에도 여전히 납세 신고서 제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비율이 올해 내내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전체 규정 준수율 83%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 푸마 주문 중단으로 사업 중단... 천 여명 정리해고



▲2023년 4월 3일, 반톤주 땅그랑시에 있는 의류 공장 툰텍스 가먼트 인도네시아의 정문이 폐쇄됐다. (사진=B-Universe /Wawan Kurniawan)

인도네시아 반톤 주 땅그랑에 있는 대형 의류 공장이 주요 고객인 스포츠 의류 대기업 푸마(PUMA)가 유럽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주문을 중단하자 사업을 중단하고 1,163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자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1992년 설립된 땅그랑 최대 의류공장인 툰텍스 가먼트 인도네시아(Tuntex Garment Indonesia)는 지난 3년간 수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3월 31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땅그랑 인력부 관계자 데스안띠(Desyanti)는 “해고의 주된 이유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계속 감소한 데다 툰텍스가 공급하던 푸마 제품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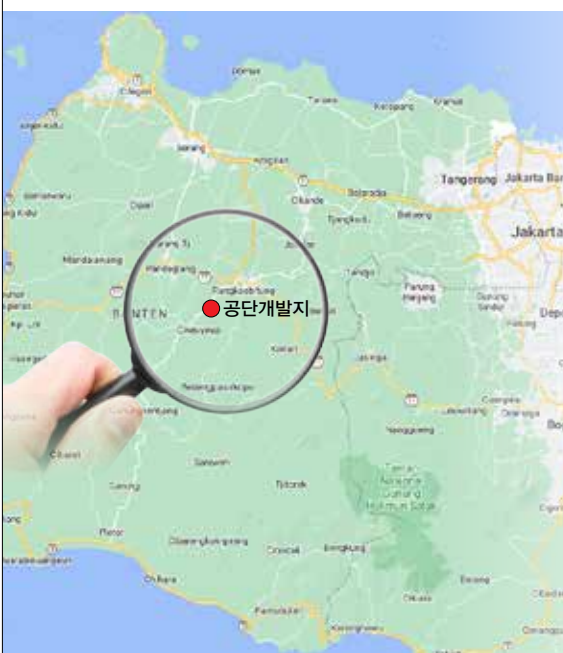
부분 판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정부 규정에 따라 대량 정리해고를 해결하고 르바란 명절 보너스(THR)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스안띠는 “툰텍스가 2023년 4월 19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THR은 늦어도 4월 15일에 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원사 생산자 협회(AP-SyFI)는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이 작년의 120억 달러에서 올해 약 1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수출 감소의 원인이 올해 초 이후 해외 바이어들의 발주 금액이 40-5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 40% 감소 전망



인도네시아 신발 협회 (Aprisind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은 2022년 77억 4천만 달러에서 올해 46억 4천만 달러로 35~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카르타글로브가 3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주문은 이미 2023년 초부터 급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발 협회 피르만 바크리(Firman Bakri) 전무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신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출은 2020년 48억 달러로 8.96% 증가했고, 2021년에는 61억 8천만 달러로 28.76%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25.15% 증가한 77억 4천만 달러 어치의 신발을 수출했다고 말했다. 피르만은 3일 인베스터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초에는 상당히 큰 성장을 보였으나, 2022년 중반부터 구매자들의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문 감소는 202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발 업계는 특성이 달라 수출 대체재로 내수시장을 활용할 수 없다.

피르만은 인도네시아의 수출품은 프리미엄 제품인 반면, 국내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피르만에 따르면, 오늘날의 추세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국내 시장을 위한 새로운 신발 브랜드를 내놓도록 장려하고 그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피르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제 현지 제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글로벌 브랜드와 동등한 수준의 현지 브랜드도 있다며 인도네시아도 품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르만에 따르면, 중하급에서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플라데오(Fladeo), 용끼(Yongki Komaladi), 카빌(Carvil) 등이며, 중상급에서 잘 알려진 국내 브랜드로는 부체리(Buchereri)가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발 중소기업은 총 159,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준비했다. 예

를 들어, 기술 개발과 수출 시장 접근 촉진을 포함하는 제품 개발 프로그램이다. 또한 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제품을 위한 특정 원자재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산업부 중소기업국장 레니아니타(Reni Yanita)는 사업자 식별 번호에 대한 통합 라이선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산업 지원을 통한 부문 간 라이선스를 포함해 더 빠르고 쉬운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Sinas)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노동부, 상여금 규정 발표... 르바란 7일 전 지급 의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올해 종교상여금(THR / Tunjangan Hari Raya) 지급 규정을 지난 3월 27일 회람을 통해 전달했다.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THR 관련 회람(Nomor M/2/HK.04.00/II/2023)에 따르면, 고용주는 르바란 시작 7일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 의무규정인 노동자의 THR를 지불해야 한다. THR를 규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THR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1개월치 임금(upah)을 산정하여 지불한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근무한 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1/12*임금)을 지불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최근 12개월 월평균 임금을, 12개월 미만 노동자는 근무한 기간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7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져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졌다. 3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4.9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며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금융시장 전망치(5.2%)를 밑도는 수치다. 휘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94%로 전망치(3.05%)보다 낮았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던 휘발유 가격을 올린 데다 전 세계 원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물가상승률이 5%를 넘겼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지난해 8월부터 지



난 1월까지 3.5%이던 기준금리를 5.75%까지 2.25%포인트 끌어올렸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면서 지난 2월부터 2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이번 달에도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BI는 올해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4%)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5%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시작됐으

며, 이달 19일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라마단과 르바란 기간에 식품 가격 등 물가가 크게 오른다. 스탠다드차타드 인도네시아의 알디안 탈로푸트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라마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물가상승률은 7개월 만에 전달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인니, 선거 앞두고 강해진 이슬람주의... U-20 월드컵도 빼앗겨

대통령 호소에도 여당·지지율 1위 후보, 이스라엘 보이콧 주장 국제대회 출전 금지 징계 받을 듯... "수천억원 손해"

인도네시아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유치권을 박탈당하면서 현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슬람주의에 편승하려다 유치했던 국제대회마저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FIFA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회 개최권을 몰수하겠다고 하며 새 개최국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에 대한 잠정 제재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대회 개최권을 빼앗긴 것은 인도네시아 내 반이스라엘 정서 때문이다.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는 외교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단체인 무함마디야 등이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 선수단이 입국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편승해 기쁨을 끼얹은 것이 정치권이었다. 이슬람 정당들이 먼저 보이콧 운동을 펼쳤고 외안 코스터 발리 주지사 등 이번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포츠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마

저 이스라엘 참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간자르 뿌라노위 중부 자바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보이콧을 촉구했다.

'식민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헌법 정신에 이스라엘이 어긋나는 나라인 만큼 이들의 참가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FIFA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 축구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막은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유력 대선 주자마저 이런 주장을 하자 PSSI도 FIFA와 이번 일을 논의할 때 이스라엘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FIFA를 안심시키기보단 러시아 사례를 들며 이스라엘 선수단의 출전을 막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이슬람주의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가 대회 유치권을 빼앗기면서 FIFA의 추가 징계도 피



김재훈의 세무상식

"4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법인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말까지이다.

대부분 한인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2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4월 말일까지이다.

세무 신고시에는 회계장부와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 28 조7항)"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 부기 형태로 기록된 회계 장부를 근거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 등 신고내역과 결산서 사상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불일치는 경우에는 결산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액과 손익계산

서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정부령 23호(PP No.23/2018)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0.5%를 납부한 PPh4(2) 신고서상 매출과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하고 복리후생비 등 개인용도의 지출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고려하여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PPh4(2))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컨설팅, 자문료, 사용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PPh23/P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도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김재훈 대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인세(SPT Tahunan) 신고시 결산서가 매월 세무 신고(SPT Masa)된 내역과 cross check 기능이 있으므로 결산서와 세무신고서상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해야 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가산세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에는 상기 사항을 우선 확인하여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한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재판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0 대표팀의 대회 출전권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대회 이후 44년 만에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었다.

다며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축구협회 행정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1년간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하는 등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나 대회 유치를 통해 얻었을 관광 수입이 사라지는 등 대규모 경제적 손실도 보게 됐다. PSSI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며 이번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 루피아(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PT. TOP ABADI

All in one packaging service with best price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품기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고객사에 도움을 드립니다.

카톤박스

단플라박스

대차 및 랙

플라스틱제품류

종이제품류 속대지, 종이각대, 종이튜브 등등

- 카톤박스 (미니, 대형 사이즈 가능)
- 단플라 박스
- 커스텀 제작 대차 및 랙,
- 원단 릴리스 거치대 및 봉제 테이블
- 팔레트(철재, 플라스틱, 종이)
- 인쇄박스 및 내부속대지

모든 아이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Bekasi Int'l Industri Estate (BIIE)
 Kawasan Industri Hyundai Blok C2 No.1A, Ds. Sukaresmi, Cikarang Selatan Bekasi, Jawa Barat Indonesia 17550
 마케팅 팀장 홍희준 0811 1129 038 마케팅 담당 Ibu Ratna 0878 7720 8572 Email : top_abadi@yahoo.co.id, rielwooha@gmail.com

국내에서 성장 한계에 부딪힌 보험·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공략에 나선 국가인 만큼 다양한 금융사들이 앞다퉀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다.

5일 여신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은 한화손해보험과 '리포손해보험'을 인수했다. 리포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의 자회사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과 한화손해보험이 리포손해보험의 지분을 각각 47.7%, 14.9%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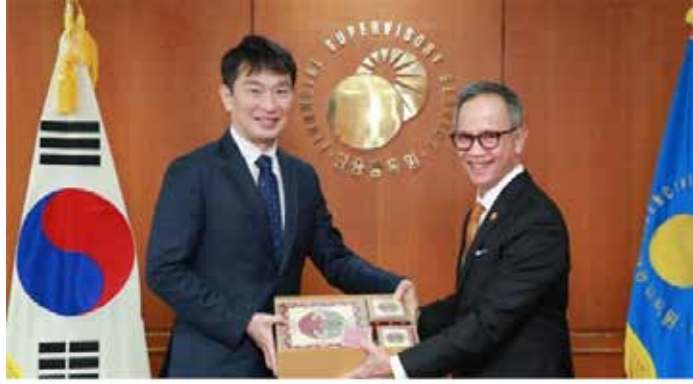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은 약 9%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보험침투율은 0.45%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2.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현재 77개에 달하는 손해보험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상위 10곳의 점유율은 50% 이하 수준으로 그야말로 '보험 난세'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자동차보험 비의무국가'로 현재 정부 주도 하에 자동차보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한화생명은 이미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보험·카드사

한화생명 '리포손해보험' 인수...설계사 3100명 활동 중 우리카드 할부금융사 인수·비씨카드 국책사업 2건 계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마헨드라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준 자카르타를 비롯해 메단, 발리 등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약 3100여명의 설계사가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력 상품은 변액 상품이며 건강보험, 단체 보장성보험 등 상품 판매를 확대하며 향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로는 KB손해보험이 이전부터 꾸준히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여왔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2000만 대로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높

은 수준이다.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는 이륜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청소년 운전자들의 이륜차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륜차 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을 공략해 관련 보험상품들을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모 미착용인 점에서 착안해 이륜차 안전모 1200개를 전달하는 등 현지인들과의 상생

교류도 이어가는 중이다.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선 금융사는 비단 보험사들 뿐만이 아니다.

우리카드는 이미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의 할부금융사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파인낸스'를 인수했으며 비씨카드는 인도네시아와 디지털 결제 국책사업 계약을 2건 체결했다.

특히 비씨카드는 기존 한국 카드사들이 해외에서 주력 사업으로 삼던 카드 대부업에서 벗어나 카드 발급부터 매입까지 카드 프로세싱 전 과정에 대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현지화 전략'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국내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달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

문해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진출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 주요 금융사 CEO도 동행한다.

이 원장은 현지 금융당국과 기관 등을 상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 금융당국이 이들의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마헨드라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라비메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장 등 금융감독 수장을 만나 지원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주)정석 테크 아바디
PT. JEONGSUK TECH ABADI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전기공사

30

년의 시간을
한인기업과 함께 해 왔습니다!

Jl. Lingkar CBD Palem Semi Ruko Kav. No.33-35, Kel.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Zip Code 15139
Tel. 021 39720121 Email. baeksy68@hanmail.net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벚꽃과 사쿠라

벚꽃 하면 진해다. 3월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진해 벚꽃 축제는 해군의장대와 군악대가 또 분위기를 살린다. 여좌천변의 벚꽃은 명소가 되었지만 꽃길의 짧아 균형제 기간 동안 여는 통제부(진해 기지)를 둘러보는 것이 재미다. 이제는 이웃, 창원시의 길에서도, 경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벚꽃을 볼 수 없는 곳이 거의 없다. 하동의 쌍계사 10리 벚꽃 길은 내가 동심을 키우던 시절에 가끔 걸어 본 길이다. 화사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일본에 벚꽃이 많은 것은 우리와 기후가 비슷해서 일 테고 일본에서 가져다 심었다는 미국 워싱턴의 벚꽃도 누구나 사랑하는 봄꽃이다. 4월 초, 이미 다 떨어지고 푸른 잎이 돌아오니 '화무10일홍'을 실감한다.

벚꽃은 양상한 가지에서 잎보다 먼저 꽃이 핀다. 바람에 날리는 한 잎 한 잎은 눈이 날리는 듯하다. 작고 못생긴 시커먼 열매, 버찌는 달지도 않다. 익으면 검어져서 떨어지면 밟히고 깨져 길에 시커멓다. 그 길바닥이 여름 장마철을 지나고서야 다시 색깔을 찾게 되니 네댓 달은 걸린다. 앵두를 닮은 이 버찌가 먹을 만한 과일이라면 어떨까? 아깝다. 벚꽃이 단지 얼었던 겨울을 끝내고 봄소식을 알리는 정

도라면 무언가 좀 섭섭하다. 꽃과 나무, 열매는 이런 통설이 있다. 꽃이 좋고 열매(과일)도 좋은 것은 없다는 것. 과일이 탐스럽고 맛있고 영양 있는 것은 꽃이 별로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나면 그 열매가 별로이거나..... 그러니 화사한 벚꽃에 비해 버찌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반중(盤中) 조홍(朱紅)감이 고와도 보인다는 그 감의 꽃은 '감뜨개' 라고도 불렀다. 노란 것이 한꺼번에 툭 떨어지면 실에 꿰어 꽃목걸이를 하곤 했다. 예뻐서가 아니라 가지고 놀 것이 없어서다. 배고파서 먹어보면 떫은 맛이 났다. 꽃이나 꽃감이나 감나무에서 난 것이니 떫을 것이다. 꽃 같지가 않으니 감꽃을 찾는 사람이 없다. 맛있는 복숭아의 그 복사꽃은 굵긴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고 사과나 능금꽃은 별로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3경인, 한 밤중에 배 밭을 보신 적이 있는가? 하얀 속살에 달콤하고 시원하고 아삭한 배는 일품이다. 그 배꽃, 이화는 아름답긴 하지만 그리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과수원에서 엄청 많이 피었을 때, 달빛을 받아야 보는 운치가 있는데 꽃을 즐기려고 찾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예쁜 장미가 먹음직한 열매를 맺던가? 딸기의 꽃을 빨간 딸기에 비할 수가 있는가? 그냥 수수하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벚꽃이 활짝 피면 약하지만 꿀 향기가 난다. 그러면 벌과 나비들이 찾아온다. 춘향이도 이도령과 '밀당'을 하면서 '접수화(蝶隨花)'라고 했다. 나비가 꽃을 따르지 꽃이 나비를 따르느냐는 말이다. 꽃은 벌, 나비를 꿀로 유혹한다. 꿀을 얻으려 열심히 벌은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힌다. 수분(受粉)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자란다. 꽃잎이 지면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 있다. 열매라는 과일을 새가 먹고 날아가 다른 곳에 똥을 누면 그 거름에서 씨가 자라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사실 꽃은 가임기에 발정(發情)난 암컷이다. 그래서 매력을 뽐는 것이다.

그런데 벚꽃이 일본의 국화인 줄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한 때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치솟아 가로수로 잘 자라는 벚나무를 베어버린 적도 있었다. 일제 때는 수탈로 먹고 살기 힘들어 숲을 가꾸지 못했다. 산에 무한정인 줄 알고 나무를 베어다 때고 또 장작으로, 솔로 팔아먹으니 산림이 황폐해졌다. 그렇게 민둥산이었던 숲이나 가로수가 이제는 넉넉하고 풍성하다. 새 봄에 벚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꽃을 아는가요? 한 여름 내내 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애국가에도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그 무궁화라서 관습적으로 국화(國花)로 여기지만 성문법적인 근거는 없다. 해방 후에 누구도 챙기지를 못했던 채로 이제까지 온 모양이다. 나무치고는 약하다. 많이 자라면 몇 미터가 되기도 하지만 목재로는 쓸모가 없어서 허허하다. 일본어로는 무

쿠게(木槿; ムクゲ)라 부르는 무궁화(無窮花)의 꽃말은 다함이 없이 영원무궁하다는 것이다. 관습법상으로는 무궁화가 우리 국화 맞고 꽃말대로 우리나라는 무궁한 발전을 할 것이라 믿는다.

라오스에서 묘약인 줄 알고 사 온, 말린 히비스커스(Hibiscus)는 거기서 나는 무궁화 꽃이다. 로젤(Roselle)이라는 것인데 200종이나 된다는 무궁화의 한 종류이다. 이 로젤 한 송이를 찬물에 담가두면 핑크빛 차가 우리나라. 향이 좋다. 마른 꽃 한 송이로 5리터는 우려먹어도 될 것 같다. 하와이의 꽃이 또, 히비스커스인데 모양이 약간 다르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히비스커스가 국화란다.

벚꽃의 일본말인 사쿠라(さくら)는 왜 그런지 '사쿠라'라고 부르게 된다. 사쿠라라는 말에는 밥에 든 누 같은 느낌이 있다. 누는 쌀밥에 어찌다 보이는 겉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를 말한다. 사쿠라는 요즘 말로 하면 '2중대' 혹은 '프락치'를 뜻하는, 정치권에서 널리 쓰였던 말이다. 특히 독재정권 시절에 걸으려는 야당 정치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알고 보면 정권과 결탁해 있거나, 야당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당 쪽에 더 많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던 정치권 은어다. 그게 일본사람 같은지는 모르겠다. 일본에서 옛날,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팔았던 것을 빗대어 쓴 것이라는데,



조기조 박사

이걸 한국 정치권에서 사쿠라로 썼던 것 같다. 일시에 피고는 곧 지고 마는 벚꽃이 한국 사람들의 냄비 같은 모습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얼마나 은근(慫慂)과 끈기로 살아왔던가? 벚꽃이건 사쿠라건 패가 갈려 독설이 난분분하고 '내로남불'인 이 세태에 꽃이라도 피지 않는다면 어찌 위로받을까 싶다. 누가 심었기에 이리 귀한 선물인가? 빛진 마음이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 봄에 꽃나무를 심어야겠다. 10년 지게는 식목(十年之計 莫如樹木)이라 했다. 꽃 피고 열매 맺으면 어찌 포근하고 넉넉하지 않겠는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로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영재성 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

2023년 4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이 열렸다. 지난 4월 1일 나래홀에서 진

행된 개강식에는 38명의 학생들(Class1-3,4학년군: 14명, Class2-5,6학년군: 14명, Class3-7,8학년군: 10명)과 학부모님들이 참가했으며, 센터장 말씀, 지도 강사 소개, 연

간활동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선아 센터장은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깊게 생각하며, 과제를 끝

까지 완성하는 힘과 함께 하는 힘을 키워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강식 종료 후 클래스별 수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의 영재 수업들을 통해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학생들의 영재성과 잠재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



▲수업하는 장면 [사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제공] 대된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제공]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인도네시아 문화동반자(CPI) 동문의 날 행사 개최



▲인도네시아 문화동반자(CPI) 동문의 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31 [사진: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31일(현지시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문화동반자(CPI) 동문의 날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은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 공적개발원조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 문화 예술인,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기획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CPI 동문을 초청하는 대면행사를 재개하여 의미를 더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소속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법무인권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CPI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고 사물놀이 공연 등 재능을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다.

CPI 인도네시아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의 크리스찬도 아딘다씨는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3년 만에 CPI 동문들과 대면으로 모일 수 있어 기쁘며, CPI 동문으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협력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교류협력과 문화 OD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청소년 국제교류 대표단 모집... 이스라엘·일본 등 방문

여성가족부는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이스라엘, 일본 등을 방문할 '2023년도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대표단'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만16~24세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별 통역 요원은 만 20세부터 2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오던 청소년 국제교류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대표단 자격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현지 가정체험(홈스테이)을 한다.

참가자 모집은 파견 시기에 따라 2회에 걸쳐 이뤄지며, 총 200여명을 선발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는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s://www.youth.go.kr/iyee/iyee/pgif/odi/view2.do>)에서 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이스라엘, 일본, 이집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에 파견될 청소년 80명 가량을 뽑는다. 선발된 청소년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0일 안팎으로 각국을 방문한다.

2차 파견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이고 파견은 8월 이후다.

신청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www.youth.go.kr/iyee)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HDG는 공방, 호텔, 공장, 쇼핑몰, 오피스, 소름, F&B, 주택인테리어 모든 인테리어 분야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HDG Home Office, Jakarta Indonesia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 Space Identities by HDG

Senopati,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 Indonesia | linktr.ee/HDGinterior
P: +62217205007 M: +62812-8759-0706 (ID) / +628111124998 (KOR) E: admin@hdg21.com



Material Sourcing



Interior Construction



Furniture Production



Interior Design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서울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디자인 설계, 시공, 가구 집기, 인테리어 데코 까지 A to Z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틈스 목금형 (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돈 불러준다더니 죽음으로 갚은 인니 주술사... 최소 10명 살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반자르느가라(Banjarnegara)의 재물 주술사(Dukun) 슬라뭇 토하리(Slamet Tohari, 45)가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사람들이 맡긴 돈을 주술로 몇 배로 불러주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 은밀히 살해한 후 암매장했는데 경찰은 인근 산자락 세 개의 구덩이에서 그가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10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80센티에서 1미터 정도 깊이로 매장되어 있던 피해자들 시신은 대부분 백골 상태였지만 살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체로 온전한 시신들도 일부 있었다. 4일자 폼빠스닷컴이 보도한 경찰의 사건 경위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경위 두꾼 슬라뭇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니셜 PO라는 인물에 대한 실종 신고를 처음 받은 것이 3월 27일(월)의 일이었다. PO는 그곳 사람이 아니라 서부자바 수까부미 주민인데 슬라뭇 토하리를 만나기 위해 3월 23일(목) 반자르느가라에 간 후 소식이 끊겼다. PO는 슬라뭇에게 돈을 불러



▲4월 4일 반자르느가라 완야사 지역 발룬 마을에서 두꾼 슬라뭇에게 살해된 피해자 시신들의 장례가 치러졌다. (사진=폼빠스닷컴/FADLAN MUKHTAR ZAIN)

달라고 맡겼던 7천만 루피아(약 600만 원)를 찾으러 갔지만 그 돈이 두꾼의 약속처럼 50억 루피아(약 4억3,000만 원)로 불러져 있을 리 없었다. PO는 실종되기 직전, 만약 이후 며칠간 자신에게 연락이 없으면 경찰을 데리고 슬라뭇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까부미의 가족에게 보냈다. 이후 실제로 PO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은 3월 27일(월) 반자르느가라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첨부해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현장인 슬라뭇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미 PO가 살해되어 암매장당한 후였다. 반자르느가라 경찰서 헨드리 울리안포 경정은 경찰이 와

나야사(Wanayasa) 숲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에서 암매장된 PO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다른 시신들을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슬라뭇은 뽀깅롱안(Pekalongan)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돈을 불러주는 두꾼 행세를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의 두꾼 행각은 은밀했으므로 경찰은 발룬 마을(Desa Balun) 소재 슬라뭇의 집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검거된 슬라뭇은 처음엔 5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발견된 시신은 모두 10구였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과 살해 시기, 동기 등을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들이 입고

있던 옷 등 유류품을 근거로 피해자들 중 최소 두 명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O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두꾼이 불러준다는 돈을 찾으러 갔거나 돈을 때일 것 같아 돌려받으려고 슬라뭇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슬라뭇은 그들에게 시안화 칼륨, 즉 청산가리 또는 복어독을 넣은 음료를 주어 마시도록 했는데 피해자들은 그것도 돈을 불러주는 주술의 한 과정이라 여겨 해당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암매장된 곳은 두

꾼 슬라뭇 소유의 땅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빼수기한(Pesugihan)이라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재물 주술이 이슬람의 수면 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일정한 형태의 재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귀신이나 영적 존재의 힘 또는 두꾼의 영력을 통해 당대에 큰 돈을 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대개 사기로 그치기 마련이고 때로는 슬라뭇 사건처럼 추악한 살인 사건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주요 브랜드 2023 광고 촬영 스토리 (11)]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올리비아하슬러, 전속모델 한지민과 '하슬러에 반하다'
여성 캐주얼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가 전속모델 한지민과 함께 한 2023년 여름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 '하슬러에 반하다!'를 슬로건으로 한지민의 사랑스러움을 극대화한 화보는 올리비아하슬러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담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화려한 색감과 리조트 감성을 담은 캐주얼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4질스튜어트 뉴욕, 조화에 중점을 둔 '뉴욕 미니멀리즘'
뉴욕 감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 뉴욕'이 '뉴욕 미니멀리즘'을 컨셉으로 한 이번 화보에서는 '조화(Balance)'에 중점을 두고 편안함과 유니크함, 트렌디와 모던, 미니멀한 실루엣과 유니크한 소재, 도회적인 비즈니스 웨어와 트렌디한 실루엣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질스튜어트 뉴욕만의 차별화된 컬렉션을 선보인다.

투미, 배우 이세영과 함께한 다채로운 컬렉션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투미'가 배우 이세영과 함께한 봄 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투미의 보야저 컬렉션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잘 대변하는 컬렉션으로 재활용 소재를 핵심 디자인에 접목시켜 탁월한 품질과 내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여성 컬렉션이다. 이번 봄 시즌에는 기능성을 갖춘 트렌디한 나일론 소재를 활용한 주요 스타일을 선보인다.



2수프라, 힙합그룹 '호미들'과 힙 바이브 패션
LA 프리미엄 스트리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수프라'가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과 함께한 스니커즈 신제품 'VAIDER X'의 S/S 시즌 비주얼 화보와 콜라보 음원을 공개했다. 수프라는 패션과 힙합, 예술 등 스트리트 문화 전반을 융합하는 프리미엄 스트리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며 MZ세대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p>NEXTIN LED LIGHTING ELECTRIC MATERIAL</p>	<p>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Lt.4 JI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 : +6221-3104414</p> <p>Cikarang Warehouse JI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Contac Person 0815-1902-4272</p>	 <p>MRO GLODOK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ufacturing Assy Cikarang Trading / Import Korea & China Small Qty Can Be Accep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livery Onsite From Glodok 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
<p>LED Highbay 100W/150W</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PACKING ITEMS :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LED TUBE T8 18W / 24W</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STEEL ITEMS :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p> 		<p>TOLLS & CONCUMABLE ITEMS : Hand Tools, WD 40</p> 
<p>ELECTRIC ITEMS</p> 		<p>SAFETY/HSE ITEMS</p> 
		<p>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p> 



▲ '페어라이어'가 올해 '상품력 강화'와 '미래시장개척'을 키워드로 삼아 국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 아시아권 시장 진출 본격화

씨에프디에이(대표 윤지나, 윤지현)의 골프웨어 '페어라이어'가 올해 '상품력 강화'와 '미래시장개척'을 키워드로 삼아 국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윤지나 대표는 "국내 골프웨어 시장의 버블이 급격하게 빠지며 보여주지 못한 골퍼들은 이탈하고 진정성을 가진 온전한 골퍼들만 남는 시장 재편이 활발하다. 이에 상품력을 강화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활발한 진출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페어라이어는 우선 잇단 러브 콜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1월 미국, 캐나다 온오프라인 편집샵과 4월 대만 타이페이 소고 백화점 명품관에 해외 첫 오프라인 단독 매장 1호점을 오픈했다. 특히 대만 소고백화점에서

페어라이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박차

는 하이엔드 장르에 소속, 1년 여간 수주를 통해 시장성을 테스트 한 결과 월 최고 2억2000만 원, 월 평균 1억 원대의 꾸준한 매출을 기록 중이다. 소고백화점 넘버 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대만 골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에 대만의 전문패션유통회사이자 페어라이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킹본(KING-BON Co. Ltd)은 올해 페어라이어 단독 매장을 본격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미츠코시 백화점을 비롯, 연내 4~5개의 모노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베트남 현지 패션유통 일인자로 리모와, 에르페스, 보테가베네타 등 조 단위 매출을 유통하고 있는 탐슨과도 독점계약을 체결, 7월 베트남 호치민 타카시마 백화점 1호점, 9월에는 하노이에 2호점을 연달아 오픈한다. 이를 필두로 연내 5개의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 3월에는 일본 라쿠텐 온라인을 오픈했으며 중국 진출도 연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은 골프웨어보다 프리미엄 액티브웨어 FLC(페어라이어클럽)로 시장을 공략한다.

한편, 국내 신규 점포 오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캘러리아 타임월드, 롯데 파주 아울렛· 광고 아울렛, 창원 대리점을 오픈했다. 여수점 대리점(4월 21일)과 현대 대전점(6월)은 오픈 예정이다.

온라인 자사몰의 비중은 20% 정도인데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 활발한 밸류업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비

주월 아이덴티티를 재확립하고, 타겟형 전략 광고를 진행, 하반기에는 보다 매스한 매체로 확대해 고객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매니아층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전략도 함께 한다. 현재 총 33

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며 연내 200억 원 매출이 목표다. 윤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만큼 올해 상품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온라

인 골프웨어로 시작해 오프라인 확장과 해외진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한 고객 밀착 마케팅, 페어라이어TV 등을 통한 쌍방향 고객 소통이 용이한 강점을 살려 로얄티를 가진 내셔널 골프웨어로 우리만의 색깔을 확고히 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섬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운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제10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작품명 : Weaving relationships 정한울 작



▲작품명 : Brilliant Orange 이현정 작

2023년 제10회 코리아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수상작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섬유·패션의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을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326-3600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